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비교 연구*

신 호 철

< 차 례 >

- | | |
|-------|-------|
| 1. 서론 | 4. 범위 |
| 2. 개관 | 5. 결론 |
| 3. 개념 | |

1. 머리말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과 문법을 배운다는 것의 공통점은 바로 ‘문법’에 있다. 정책적으로 문법 교육 현장의 ‘문법’은 ‘학교 문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수자가 가르치는 ‘문법’과 학습자가 배우는 ‘문법’은 동일한 내용 곧 ‘학교 문법’이고, 또 그것이어야 하며, 그것일 수밖에 없다.

교수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문법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학습자에게 가르침을 수행하고, 학습자 역시 그 내용과 범위 내에서 교수자와 함께 배움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 문법이라는 공통 성취 수준

* 이 논문은 2016년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주체는 교수자이고, 학교 문법 수준에 도달하는 주체는 학습자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제 교수·학습 현상을 파헤쳐 보면 당위론적인 내용의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문법 교육의 공통 내용인 ‘문법’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자 하는 문법의 내용과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교수자의 문법과 학습자의 문법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교수자가 실제 목표로 하는 문법 교육 내용의 교수 수준과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문법 교육 내용의 학습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에 만족해하지 못하고, 학습자는 나름의 성취 수준 결과에 만족해하는 만족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수자의 문법과 학습자의 문법의 차이점에서 대하여 논의하여, 교사 문법의 개념과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이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차이점을 밝히고 두 문법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계 설정은 국어과 예비교사들이 중등교원임용시험을 대비하여 학습해야 하는 문법 내용과 범위에 대한 안내선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학교 문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안내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학습하는 학교 문법의 내용과 범위의 경계 설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문법 주변의 여러 가지 관련 문법에 대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해 본다. 학문과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관련 문법 용어와 개념들 속에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구분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하여 논의한다. 학교 문법은 정형화되고 규범적이고 통일된 문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용어나 개념으로 사용되든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이든 학습자이든 그 범주와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교수자가 담고 있는 문법 지식과 학습자가 담고 있는 문법 지식이 반드시 학교 문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교사의 문법과 학습자의 문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본다.

다음으로 앞에서 정리한 교사 문법의 개념 범주를 통해 교사 문법의 범위를 설정해 본다. 이는 학교 문법의 범위를 기반으로 교사 문법은 학교 문법 이상의 범위로 설정해야 함을 논의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한다.

2. 개관

그동안 국어 문법 교육 분야에서 주된 연구 대상은 학교 문법으로서, 그 학교 문법을 사용하고 학습하는 학습자가 문법 교육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국어 문법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 문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양영희(2015:76)에서도 ‘예비교사’를 위한 문법 교육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

양영희(2015)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을 ‘학교문법 교육’으로 하고, 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을 ‘대학문법 교육’으로 정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논의하고 ‘대학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곧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는 “문법 교육을 교육하는 방법”에, 초·중등학생을 위한 연구는 “문법을 교육하는 방법”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 ‘국어지식’ 교육에 중점

1) 아마도 국어 문법 교육 분야에서 교사 문법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양영희(2015)가 처음인 듯하다. 양영희(2015)의 주된 목적은 ‘대학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방안 제시에 있고, 본 연구는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을 두었던 ‘대학문법 교육’에서 ‘교수·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학문법’과 ‘학교문법’은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학문법 교육’에서 문법 교과목 설정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문법 교육’에서 탐구 학습에 대한 기존 용어 정리와 함께 ‘일탈문 수용하기’ 과정을 설정하여 ‘대학문법 교육’에서 탐구 활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양영희(2015)의 논의는 그동안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문법 교육’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학문법 교육’을 분리하여야 함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김은성(2016)에서는 문법 교육의 현실을 사회·정치적인 맥락, 현실적 맥락 속에서 기술하면서 쉽지 않은 문법 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그러한 현장 속에서 ‘국어 문법 교사’ 양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교육내용의 대강화(大綱化)’, PCK의 일반 기준 마련, 문법 평가 전문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상시 연수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문법 교육의 현실을 ‘국어 문법 교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대안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국어교육 분야보다는 앞서 교사의 문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해영(1998)에서는 ‘교육문법(pedagogical grammar)’과 ‘교수문법(teaching grammar)’을 구분하였다. 언어 교육 현장에서 이론 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 참고나 지침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이 ‘교육문법’ 또는 ‘교수문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교육문법’은 언어학과 교육학의 매개자이며,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지침이 되어 줄 ‘교육문법’과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 의사소통적 문법 교수를 가능하게 해 줄 ‘교수문법’이라고 하였다. 이해영(1998)은 ‘교육문법’과 ‘교수문법’을 구별하여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자를 위한 문법으로 ‘교수문법’을 설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교사의 문법과 학습자의 문법을 구별하여 논의한 것은 우형식(2010)이라 할 수 있다. 우형식(2010)은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선정을 위한 연구이다. 여기서 교육 문법을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에 따라 ‘교사 문법’과 ‘교수 문법 또는 학습자 문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교사 문법’은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사 문법’이 체계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학습자 문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재영(2013)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을 ‘교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별하고 한국어 ‘대우 체계’와 ‘시제 범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식 내용을 전개하면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 문법 범주의 내용을 통한 접근이라 자칫 한국어의 ‘대우 체계’와 ‘시제 범주’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여 기술하는 인상이 강하여,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차이를 논의하고 그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 해결적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

3. 개념

본 장에서는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되는 여러 ‘문법’에 대한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검토한다. 그리고 이 검토된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을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다.

2.1. 관련 ‘문법’의 종류와 개념

먼저 학교 문법과 관련된 ‘문법’ 용어와 개념을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1)과 같다.²⁾³⁾

(1) 관련 ‘문법’ 용어 및 정의

구분 용어	연구	정의
학교 문법 (school grammar)	이성영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문법• 다양한 학문 문법을 통일하고 규범화하여 가르치고 배우기

- 2) ‘문법’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방대하다.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정리한 선행 연구는 전통 문법적인 기술 대상은 배제하고 대체적으로 주요 근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정리한 것이 전부는 아님을 밝히며 정리 대상에서 빠진 연구자에게 양해를 구하며, 이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노력 부족이다.
- 3) 문법 관련 용어의 유형과 개념에 대한 정리는 우형식(2010), 임철성(2010), 이선웅(2010, 2014), 유현경(2013, 2015)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선웅(2010, 2014)에서는 학교 문법 관련 문법 개념과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본문의 (1) 도표에 기입하지 못한 것은 이선웅(2010, 2014)에서 정리하고 있는 문법 용어 등이 방대하고 주로 각 선행 연구의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 관계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선웅(2010, 2014)만의 ‘문법’ 정의라기보다는 개념 분석을 통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있어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임홍빈(2000)에서 학교 문법의 성격을 기술한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일부를 재진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선웅, 2010:79)

(2) 학교문법의 성격

- 가. 학교문법은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상정되는 문법이다.
- 가’. 학교문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다.
- 나. 학교문법의 교수 대상은 학생으로 상정되는 사람이다.
- 나’. 학교문법의 교수 대상은 학생이다.
- ... (중략) ...
- 바. 학교문법은 공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 바’. 학교문법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는 이선웅(2010)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와 같이 선행 연구자의 논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재정리하고 있어 나름의 압축된 정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본 도표에서 생략하였다. 어찌됐든 이선웅(2010, 2014)에서는 그간의 관련 문법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방대하게 정리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쉽게 재구성한 것
	이관규 (1998 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교수·학습되는 문법
	임홍빈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법. 현실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된 교과서의 문법
	임지룡 외(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우리말과 관련된 모든 언어학적 지식 체계
교육 문법 (pedagogic grammar)	이성영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 교육이 갖는 교육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내용과 방법을 표상해 놓은 문법 기술
	이관규 (1998 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문법
	임철성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개념의 학교 문법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언어 교육’의 개념
	우형식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표상된 문법의 하나 • 목표 언어의 원어민 화자의 지식 체계 속에 존재하는 규칙들을 교육적 목적과 관점에서 기술한 것
규범 문법 (prescriptive grammar)	이관규 (1998 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사회에서 약속된 문법
	임홍빈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학교나 학생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며 학교 문법에 비하여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
	임철성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는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한 문법 • 구체적으로 어문 규정을 가리킴. • 학문문법의 기술성과 대립 • 모든 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문법의 내용으로 포함 • ‘명령 문법, 실용 문법’의 성격을 지님.
표준 문법 (standard grammar)	임홍빈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할 문법” • 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 표준할 문법 • 상대적으로 모범이 되는 문법으로 옳고 그름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지 않고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음.
	권재일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나 술어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그리고 규범적인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문법’
	임철성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현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그것을 제공하는 문법 • 일종의 참조 문법을 가리킴
	유현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 등의 교육 문법뿐 아니라 학문 문법이나 생활 문법에 기준을 제공하는 문법

학문 문법 ⁴⁾ (academic grammar)	임지룡 외(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도출된 가공의 지식 체계 • 언어학의 성과물로서 그 자체가 이 학문의 목표가 되는 존재
생활 문법 (living grammar)	민현식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문법과 이해 문법 • ‘지식 문법’을 생활 속에 적용 실천하는 것 • ‘언어 탐구-생활 적용’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문법 • 학교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는 표현과 이해 생활을 위한 문법
	유현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이외의 언어생활에 필요한 국어 문법 지식
참조 문법 (reference grammar)	심영택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 교육을 설계할 때 토대로 삼을 수 있는 문법 • ① 순수(pure) 문법: 학문적인 담론 공간에서 국어학자들이 생성한 지식으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문법 • ② 반실재(semi-reality) 문법: 교육적인 담론 공간에서 문법 교육학자들이 생성한 지식으로 단계화되고 위계화된 문법 • ③ 실생활(real-life) 문법: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생성한 지식으로 암묵적으로 조건화된 문법
	우형식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학문 문법과 규범 문법, 학교 문법 등이 포함되며 그중 학문 문법이 주요한 참조 대상이 될 수 있음.
	유현경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법이나 한국어교육문법 등의 교육문법뿐 아니라 이론문법에 기준을 제공하는 문법
기반 문법 (base grammar)	유현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체계나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문법과 생활문법 등의 여러 유형의 문법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1)에서 정리한 문법 관련 용어와 개념들을 보면, 문법 용어는 모두 8개이다. 이들을 학교 문법 관련 용어와 개념, 학문 문법 관련 용어와 개념, 그 외의 문법 용어와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학교 문법 관련 문법 용어로는 ‘학교 문법’, ‘교육 문법’, ‘규범 문법’, ‘표준 문법’ 등이 있고, 학문 문법 관련 용어로는 ‘학문 문법’(‘기술 문법’, ‘이론 문법’, ‘과학 문법’(유현경, 2013:72)’) 등이 있으며, 그 외 문법 관련 용어로는 ‘생활 문법’, ‘참조 문법’, ‘기반 문법’ 등이 있다.

이 많은 문법 용어들은 저마다 그 대상이나 용도, 의미에 따라 다르게 사

4) ‘학문 문법’은 ‘기술 문법(descriptive grammar)’, ‘이론 문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학문 문법’ 용어로 통일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법 용어들이 서로 대등한 층위에 있으면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하 관계에 있으면서 상층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참조 문법’은 어떤 문법 내용을 설계할 때 토대가 되거나 참조할 수 있는 문법 개념인데,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 관련 모든 문법 용어를 포함하는 최상위 문법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문법 용어와 개념들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음을 볼 때, 상위의 문법 용어와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관계에 있는 문법 용어와 개념도 있을 수 있음도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여러 대상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문법 용어와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인 ‘교사 문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인 ‘학습자 문법’, 문법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문법인 ‘교수 문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3.2.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

학교 문법 교육의 주 대상은 ‘학교 문법’인데, 그 ‘학교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알고 있는 문법과 그 ‘학교 문법’을 배우는 학습자가 알고 있거나 알게 되는 문법이 상치함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교사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수·학습 내용인 ‘학교 문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지만, 학습자는 문법 학습에서 도달해야 하는 ‘학교 문법’에 대하여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교사와 학습자의 문법 숙지 정도가 상치함을 인정할 때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이 별개의 것임을 상정할 수 있다.

이성영(1998:209)에서는 문법학자들의 문법 연구 구조와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 구조는 정반대 방향의 구조로 순환적인 과정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성영(1998:209)에서 제시한 문법 순환 과정⁵⁾

- ① 문법 능력 → 문법 학자 → 문법 기술 1
- ② 문법 기술 2 → 학생 → 문법 능력
- ③ 문법 능력 → 학생 → 문법 기술 3

(2)에서 ‘문법 기술 1’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고, ‘문법 기술 2’는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국어의 구조와 규칙에 대한 기술이고, ‘문법 기술 3’은 학습자들 스스로 문법 학습을 통하여 형성하게 된 문법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법 기술 1’과 ‘문법 기술 2’는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문법 기술 3’은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 현상 구조에서 ‘문법 기술 3’을 포함하여 ‘문법 능력, 학생, 문법 기술 2, 문법 기술 3’이 문법 학습의 네 가지 요소에 포함되어 이들은 순환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학습자들은 문법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문법 기술 1’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기술 1’의 내용을 어떤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재생산한 ‘문법 기술’ 내용을 대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성영(1998:209-212)에서는 ‘문법 기술 1’과 ‘문법 기술 2’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문법 기술 2’는 전통적으로 ‘학교 문법’으로 불려 왔던 것으로, ‘문법 학습의 순환 과정’이 폭과 깊이를 더해가며 용이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친 ‘문법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라는 중개자를 설정할 수 있다. 곧 문법학자의 문법 기술 내용을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친 문법 기술 내용으로 숙지한 교사는 그러한 문법 능력

5) 본래 이성영(1998:209)에서 제시한 예에서 ‘문법 기술’은 ‘문법 기술 1, 2, 3’이 아닌 모두 ‘문법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문법 기술 1’, ‘문법 기술 2’, ‘문법 기술 3’으로 구분한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 결과를 바로 제시한 것이다.

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문법 기술 내용을 통해 문법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를 수정하여 제시한다면 3단계의 과정이 아니라 4단계의 과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2)의 ‘문법 순환 과정’⁶⁾을 수정하여 제시하면 (3)과 같다.

(3) 문법 학습의 순환 과정

- ① 문법 능력 → 문법 학자 → 문법 기술 1
- ② 문법 기술 2 → 교사 → 문법 능력 1
- ③ 문법 기술 3 → 학생 → 문법 능력 2
- ④ 문법 능력 2 → 학생 → 문법 기술 4

(3)에 수정 제시된 ‘문법 학습의 순환 과정’에서 ‘문법 능력 1’과 ‘문법 기술 3’은 교사의 문법에 해당될 것이고, ‘문법 능력 2’와 ‘문법 기술 4’가 학습자의 문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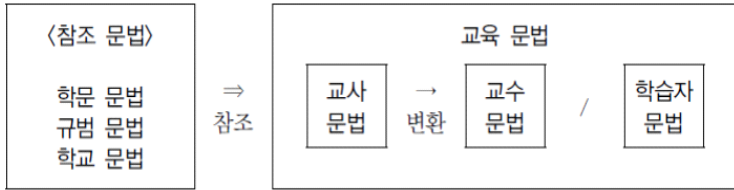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교사와 학습자가 문법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내재되거나(문법 능력 1) 교사가 외현화하는(문법 기술 3) 문법과 학습자에게 내재되거나(문법 능력 2) 학습자가 외현화하는(문법 기술 4) 문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법 지식의 측면에서도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이 서로 다름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 우형식(2010:243)에서는 ‘교육 문법’은 포괄적 개념이며,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에 따라 ‘교사를 위한 문법(교사 문법, teacher’s grammar)과 교수를 위한 문법(교수 문법, teaching grammar) 또는 학습자를 위한 문법(학습자 문법, learner’s grammar)’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6) 이성영(1998)에서는 ‘문법 순환 과정’으로 제시하였는데, 그의 설명이나 내용으로 볼 때, 문법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학습자들이 문법을 학습하는 흐름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문법 학습의 순환 과정’으로 수정한다.

하였다. 그러면서 교육 문법이 교수 문법이나 학습자 문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문법 지식의 변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다음 (4)와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4) 우형식(210:244)의 ‘문법 지식의 변환’



(4)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에게 가르칠 문법 지식은 학문 문법, 규범 문법, 학교 문법의 지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교육 문법으로의 지식적 변환이 요구되며, 교육 문법 안에서도 교사를 위한 문법 지식과 학습자를 위한 문법 지식이 구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구별은 그 기능이나 외현화 과정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곧 교사 문법은 교사가 특정 문법의 실제적인 용법을 익히며 문법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데, 이를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학습자에 따라서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문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 문법은 상황을 통해 제시되는데, 학습자가 문법을 적용할 때에 예시나 맥락을 통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제시되는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언어 형식으로 문법을 일반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법 학습의 과정과 문법 내용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이 구별될 수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다음으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을 구분하여 논의한 선행 연구들의 각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 (5)와 같다.

(5)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 관련 용어 및 개념 정리

연구	구분		교사 문법	학습자 문법
	용어			
이혜영 (1998)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법(pedagogical gramm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문법(teaching grammar)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학과 교육학의 매개자 이론언어학의 연구 결과인 학문 문법과 교수자나 교재 작성자, 학습자 등을 위한 언어 자료의 연결 고리 순수언어학적 요소뿐 아니라 심리학적, 사회언어학적 요소, 중간 언어 연구, 언어습득에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구성 교사들에게 지침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법과의 연계 선상에서 설명되는 것 강의 교재 등에 구체적으로 실현됨.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 의사소통적 문법 교수를 가능하게 해 줌.
우형식 (2010)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문법(teacher's gramm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 문법(teaching grammar) 또는 학습자 문법(learner's grammar)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관점, 훈련 언어학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구성 교실에서 적용되는 문법을 이어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성적 관점, 발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함 실제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현상 중요
한재영 (2013)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의 문법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알고 있는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
양영희 (2015)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문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문법 교육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교육

(5)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용어와 개념이다.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양영희(2015) 정도이다.⁷⁾ (5)를 통해 볼 때,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습의 대상이었던 학

7) (5)에서 양영희(2015)의 경우는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그만큼 국어

교 문법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문법과 학습자의 문법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교사 문법’은 교사가 알고 있거나, 교사를 위하거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으로 정리되며, 이는 학교 문법보다 상위의 학문 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 문법’의 경우도 학습자에게 필요하거나 학습자를 위하거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으로 정리되며, 이는 학교 문법이나 교사 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6)과 같다.

(6)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개념

- ① 교사 문법: 학문 문법에 포함되며, 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거나 교사가 외현화 할 수 있는 문법
- ② 학습자 문법: 학교 문법에 포함되며, 학습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거나 학습자가 외현화 할 수 있는 문법

(6)에 정리된 개념에서 ‘내재화’와 ‘외현화’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 것이다. 곧 교사나 학습자가 기존 문법 학습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의 측면과 문법 학습을 통해 알게 된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전자를 ‘내재화(內在化)’, 후자를 ‘외현화(外現化)’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두 측면은 국어 문법 교육의 주요 범주인 ‘지식’과 ‘사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표현한 것이다.⁸⁾

문법 교육 분야에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구별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포함한 것은 본고의 근본적인 연구 취지와 양영희(2015)의 연구 목적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곧 예비교사의 문법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선점을 찾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8) 이관규(1998:86)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 체계의 세 범주로 ‘지식 영역(이해)’, ‘사용 영역(실제)’, ‘태도 영역(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이를 수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태도 영역’ 범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주체인 교사와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문법 지식이나 앞으로 습득할

4. 범위

본 장에서는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개념적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다.⁹⁾ 앞의 (5)에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에 대한 선행 연구의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개념적 차이로 인해 그 범위의 차이가 발생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곧 교사 문법의 경우 이론 언어학의 연구 결과인 학문 문법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교수자나 교재 작성자, 학습자를 위한 연결 고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문법은 학문 문법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선정된 문법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곧 학교 문법은 개념적으로 학문 문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 문법, 교사 문법, 학교 문법의 관계는 ‘학문 문법 > 교사 문법 > 학교 문법’의 포함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 학습자 문법은 ‘교육 문법’과 연계 선상에서 설명된다고 정리하였다. 이는 곧 학습자 문법은 학교 문법 범주 내에 있음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접하는 문법 내용은 문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학교 문법 내용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문법 교과서의 학교 문법 내용을 대상으로 학습하고 이를 내재화하고 외현화하기 때문에 학습자 문법은 학교 문법의 범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습자 문법과 학교 문법의 관계는 ‘학교 문법 > 학습자 문법’의 포함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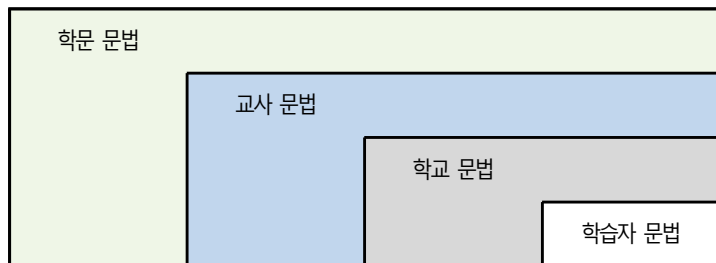
학문 문법, 교사 문법, 학교 문법, 학습자 문법의 개념적 범위의 관계를

문법 능력에 대한 태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의 태도를 전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9) 그러나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내용적 범위는 곧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니, 이는 방대한 자료와 문법 내용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에 대한 면밀한 천착이 필요하고, 또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구분이라는 본고의 목적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함이다.

정리하면 ‘학문 문법 > 교사 문법 > 학교 문법 > 학습자 문법’의 순서대로 각각 선행 문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학문 문법, 학교 문법, 교사 문법, 학습자 문법의 개념적 범위 관계



(7)의 개념적 범위 관계로 보아 교사 문법은 학문 문법 범위 안에 포함되고 학교 문법보다 상위 층에 있으며, 학습자 문법은 학교 문법 범위 안에 포함되는 가장 하위 층에 존재하는 문법임을 알 수 있다. 교사가 문법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법 내의 내용만을 다루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교 문법 내용 중 서술격 조사로 인정하고 있는 ‘이다’의 경우 학문 문법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곧 학교 문법의 내용대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인정할 것인지, ‘이다’를 지정사로 인정하여 용언의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다’의 ‘-이-’는 용언이 아닌 성분을 용언으로 만들어 주는 용언화 접사로 인정하여 접미사로 설정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학교 문법 내에서 문법 내용으로 기술할 수 없다. 내용적 통일성을 지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문법의 범위는 학교 문법을 포함하면서 학문 문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 문법에서도 학교 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법 교육 방법 중 탐구 학습을 통하여 학교 문법의 내

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학습자 문법이 학교 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법 교육에서 탐구 학습은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법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교수·학습 차원의 문제이다. 만약 문법 교육을 실행할 때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로 학습자 문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초·중등학교 문법 영역의 각 학습 목표를 보면 학교 문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때 학습자 문법이 학교 문법 내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탐구 학습을 통한 문법 교육은 문법 층위의 문제가 아닌 교수·학습법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학습자 문법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학문 문법, 학교 문법, 교사 문법, 학습자 문법의 개념적 범위를 설정하여 그 포함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문법이 어떠한 전개 과정으로 문법 교육에 적용되는지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임지룡 외(2005)에 따르면 학문 문법은 ‘언어학의 성과물로서 그 자체가 이 학문의 목표가 되는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일정한 규칙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언어학의 연구 결과물로서의 문법이다. 이러한 학문 문법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통일성과 규범성, 실용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조직한 문법이 학교 문법이다. 따라서 학문 문법에서 학교 문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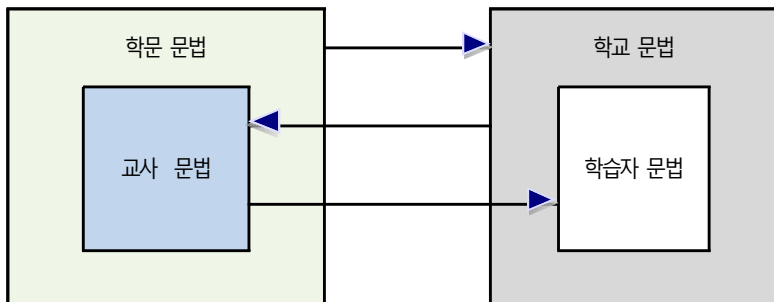
그리고 교사 문법은 학문 문법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 문법 범주 안에 포함되고, 또한 교사는 학교에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학교 문법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은 교사 문법에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 문법은 기본적으로 학교 문법 내용 속에서 내재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개인의 문법 능력

을 바탕으로 학교 문법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교수·학습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문법은 학습자 문법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8)과 같다.

(8) 학문 문법, 학교 문법, 교사 문법, 학습자 문법 전개 과정



(8)에서 학문 문법, 학교 문법, 교사 문법, 학습자 문법의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문법의 출발점은 학문 문법이며, 이 학문 문법에서 학교 문법으로 전달되고, 학교 문법에서 다시 교사 문법으로 전달되고, 교사 문법에서 학습자 문법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학교 문법에서 교사 문법으로 전달된다고 하여 교사 문법이 학교 문법에 포함되는 하위 문법이 아니다. 교사 문법은 기본적으로 학문 문법에 포함되고, 여기에 다시 학교 문법도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 교사 문법으로 흐르는 전개 과정이 펼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사 문법은 학문 문법에 포함되고 학습자 문법은 학교 문법에 포함되며, 학문 문법의 결과가 학교 문법으로 전개되고, 학교 문법은 교사 문법으로 편입되며, 교사 문법은 학습자 문법으로 이입되는 전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교사를 위한 교사 문법과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 문법을 구분할 수 있음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하였다.

먼저 여러 문법 관련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 8개의 문법 관련 용어로 정리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즉 학교 문법 관련 용어로 ‘학교 문법, 교육 문법, 규범 문법, 표준 문법’이 있었고, 다음으로 학문 문법 관련 용어로 ‘학문 문법(기술 문법, 이론 문법, 과학 문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문법 관련 용어로 ‘생활 문법, 참조 문법, 기반 문법’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법 관련 용어들은 일부 상하위의 계층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의 하위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근거로는 이성영(1998)에서 제시한 ‘문법 순환 과정’과 우형식(2010)에서 논의한 ‘문법 지식의 변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성영(1998)의 ‘문법 순환 과정’에서는 교사의 문법 능력과 문법 기술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또 단순히 문법의 순환 과정이 아닌 문법 학습의 순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문법 학습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교사 문법은 ‘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내재화 되어 있거나 교사가 외현화 할 수 있는 문법’으로, 학습자 문법은 ‘학습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내재화 되어 있거나 학습자가 외현화 할 수 있는 문법’으로 개념화 하였다.

또한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개념적 범위로 학문 문법 속에 교사 문법이 포함되고, 학교 문법 속에 학습자 문법이 포함되며, 학문 문법에서 학교 문법으로, 학교 문법이 교사 문법으로, 교사 문법이 학습자 문법으로 전개됨을 논의하였다.

이렇게 교사 문법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교사들이 문법 학습을 할 때 그

범위를 한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춘화(2010), 교육 문법의 목적과 성격 연구, 『새국어교육』 84, 한국국어교육학회, 5-28쪽.
- 권재일(200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문법의 개발 방향,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원, 103-116쪽.
- 김윤신(2014), 국어 의미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국어학회, 255-282쪽.
- 김은성(2016), 국어 문법 교사와 문법 교육, 『문법교육』 28, 한국문법교육학회, 1-23쪽.
- 민현식(2008), 국어학의 성과와 미래 국어교육에의 적용,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185-220쪽.
- 박정규(2004), 현행 학교 문법에 나타난 몇 문제, 『시학과 언어학』 8, 시학과 언어학회, 113-141쪽.
- 박형우(2008), 문법 교육에서의 교사 요인 연구, 『청람어문교육』 37, 청람어문교육학회, 185-220쪽.
- 신호철(2014), 교육 내용으로서 문법 지식에 대한 재고, 『한국어문교육』 15,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19-138쪽.
- 심영택(2004),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국어교육학회, 355-390쪽.
- 양영희(2015), 예비교사들의 문법 교육 방향 설정에 대한 시고, 『우리말글』 65, 우리말글학회, 75-97쪽.
- 우형식(2010),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 26, 우리말학회, 235-266쪽.
- 유현경(2013), 표준 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문법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67-99쪽.
- 유현경(2015), 학교문법 정립에 있어서 표준문법의 역할, 『우리말연구』 43, 우리말학회, 65-90쪽.
- 이관규(1998ㄱ), 『학교문법론』, 월인.
- 이관규(1998ㄴ), 학교문법의 내용 체계, 『새국어교육』 56, 한국국어교육학회, 73-92.

- 이관규·신호철·이영호·박보현·유미향 역(2015), 『교사를 위한 문법 이야기』, 사회평론.
- 이동석(2014),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국어학회, 283-329쪽.
- 이문규(2008), 문법 교육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내용, 『언어과학연구』 46, 언어과학회, 23-41쪽.
- 이상신(2014), 국어 음운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국어학회, 207-231쪽.
-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49-277쪽.
- 이선웅(2010), 국어 교육의 학교문법과 한국어 교육의 표준문법, 『어문논집』 43, 중앙어문학회, 75-96쪽.
- 이선웅(2014), 기술문법과 학교문법-총론, 『국어학』 69, 국어학회, 167-205쪽.
- 이성영(1998), 교육문법의 체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 국어교육학회, 199-243쪽.
- 이해영(1998), 문법 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411-438쪽.
-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임철성(2010), 자국어 문법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 비교 연구,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1-28쪽.
-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원, 5-26쪽.
- 정희창(2014),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국어학회, 233-254쪽.
- 최형용(2003), 규범 문법과 학문 문법의 親疎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1, 한중인문학회, 70-95쪽.
- 한재영(2013), 교사의 문법과 학습자의 문법, 『문법교육』 18, 한국문법교육학회, 241-265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Shin Ho-cheol

This study discussed that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can be distinguished from some grammar which we used. Also, we discussed the concepts and scope of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First, this study summarized the various terms and concepts related to grammar that we use, focusing on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we can classify into 8 major grammatical terms and three major categories.

And it is discussed that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can be set separately by these grammar. We proposed the structure of 'Transformation of grammatical knowledge' and 'Cycling process of grammar learning' as reasons.

Therefore, the teacher's grammar is conceptualized as 'Grammar that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internalized to teachers or externalized by teachers', and the learner's grammar is conceptualized as 'Grammar that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internalized to learners or externalized by learners'.

Also, as the conceptual scope of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teacher's grammar is included in academic grammar, learner's grammar is included in school grammar. And this study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academic grammar to school grammar, school grammar to teacher's grammar and teacher's grammar to learner's grammar.

- 주제어 : 교사 문법, 학습자 문법, 학문 문법, 학교 문법, 교육 문법, 규범문법, 표준 문법
teacher' s grammar, learner' s grammar, academic grammar,
school grammar, pedagogical grammar, prescriptive grammar,
standard grammar

신호철

소 속 :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 kkokku@cju.ac.kr

논문 접수 : 2018. 01. 27.

논문 심사 : 2018. 02. 20.- 03. 05.

게재 결정 : 2018. 03. 10.
